

아버지와 미취학자녀의 공유시간유형 결정요인

김 외 숙(방송대 교수) · 박 은 정(성균관대 박사수료)

최근 남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가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취학자녀를 둔 젊은 남성의 자녀양육참여가 변화하고 있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가 미취학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유형을 밝히고 그 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미취학자녀를 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비농가 기혼취업남성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행동은 ‘주행동’으로 한정하였고 분석된 시간일지는 1,613부(평일 1,208부, 일요일 405부)이다. 아버지와 미취학자녀의 공유시간 유형화를 위해 아버지의 자녀돌보기시간과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여가시간이라는 두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군집간의 차이 검증을 밝히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 및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개인관련 변수로서 연령, 교육수준, 직업, 노동시간, 개인 월평균소득, 주휴제도, 성역할 태도와 가족관련변수인 맞벌이 변수가 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녀돌보기시간과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여가시간을 축으로 아버지와 미취학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을 유형화하면 요일에 관계없이 여가형, 취약형, 자녀돌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취약형에 속하는 비율은 평일과 일요일에 각각 75.8%, 65.9%로 요일에 관계없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 유형이 평일에는 자녀돌봄형(14.9%) > 여가형(9.3%)의 순서이고 일요일에는 여가형(18.5%) > 자녀돌봄형(15.6%)의 순서로 나타났다. 취약형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자녀돌보기와 공유여가를 합하여 평일 12분, 일요일 51분이었다.

셋째, 아버지와 미취학자녀의 공유시간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평일의 경우 취약형에 비해 여가형이 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노동시간, 소득이고, 취약형과 자녀돌봄형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는 교육수준, 노동시간, 성역할태도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취약형과 여가형을 구분하는 요인이 교육수준, 직업, 노동시간, 성역할태도로 나타났고 취약형과 자녀돌봄형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는 노동시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평일의 경우 기혼취업남성이 미취학자녀와 함께 하는 평균시간이 12분에 불과한 취약형이 75.8%이고, 일요일에도 평균 51분으로 1시간이 되지 못하는 취약형이 65.9%라는 점에서 아직 다수의 기혼취업남성이 미취학자녀를 돌보거나 자녀와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미취학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아버지의 노동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OECD 가입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할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성역할태도도 아버지와 미취학자녀와의 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부부가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